

# 낙농산업의 현황과 전망



이 정 호

서울유유협동조합 지도부장

## 1. 머리말

**세** 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은 세계각국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대양의 파고가 한국 국경을 거침없이 넘어오는 변화에 적응해야만 건널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보호와 육성으로 성장한 우리 낙농산업은 총생산액 1조 5천억원으로 축산 총생산액의 28% 정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역사는 불과 3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60년대가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면, '70년대는 소비증가의 시기였으며 '80년대는 성장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는 고조되는 유제품의 수요시기에 개방의 문호가 활짝 열리면서 국내의

유유자급율은 떨어지는 전환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어떻게 우리 낙농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간에 있었던 유질문제와 더불어 최대의 과제라 하겠다.

## 2. 낙농산업의 현황

### 가. 생산기반의 영세성

낙농산업의 성장기인 '80년대는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발전으로 그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춘 시기이다.

'85년도에 낙농가수는 44천호에 이르러 젖소는 39만두가 사육되었고 1농가당 사육두수는 9두에 불과하였으나 10년후인 '95년은 농가수가 24천호로 줄었으며 젖소는 무려 16만두가 증가한 55만두로서 호당 사육두수는 23두로 점차 전업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반 선진낙농국의 상황과 견주어 볼 때, 년 1~2%가 증가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남은 4년간 젖소두수면에서 국제적인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수준임을 알 수 있

표1. 년도별 낙농가수 및 사육두수 현황

구 분	'80	'85	'90	'95
낙 농 가 수	18천호	44	33	24
사 육 두 수	180천두	390	504	551
호당 사육두수	10두	9	15.3	22.9

자료: 낙농편람('95 농림수산부)

다.

### 나. 지급률의 하락

우유의 생산과 소비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식생활 개선으로 비례적으로 성장하였다.

원유생산량은 '80년도 452천톤에서 '94년 1,917천톤으로 4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부족분은 탈지·전지 분유를 수입하여 수급을 조절하였다.

소비량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는데, 연대별 소비패턴을 보면 '80년대 중반까지 주 소비품목이 시유 중심이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치즈와 발효유 제품의 소비가 급신장하였다.

치즈는 그 성장률이 급격히 증가('80년도 대비 100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식생활개선으로 인한 피자, 치즈등의 소비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급성장 한 요인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 성장 품목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발효유의 경우, 액상 요구르트는 매년 평균 15% 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호상요구르트는 '87년 부터 시판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초창기보다 27배 증가할 정도로 엄청난 증가를 하였고 치즈와 함께 고부가가치 주 성장 품목이다.

그러나 버터, 연유는 '80년 대비 2~4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80년대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버터와 연유의 소비는 정체·감소 또는 증가율 둔화로 과거와 같은 소비증가율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소비 패턴이 시유 중심에서 앞으로는 유제품 위주로 그 양상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은 일본의 소비패턴이 1인당 소비량 87kg중에서 약 50%가 가공유제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문제는 값싼 치즈와 전·탈지분유의 수입으로 인하여 그 용도에 쓰여진 8~10% 내외의 원유가 잉여될 것이라는 낙농의 크나큰 고민이 있다.

조치에 순발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 유제품수입과 가장 밀접한 것은 국내 원유수급이다. 다행스럽게도 '94년 하반기에 원유가 남을 것이라는 예측이 빛나간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이상고온 덕분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94년말의 고질적인 전·탈지를 모두 소진시켜 '95년도 원유수급을 부족으로 출발시켰고 비교적 수지가 맞는 해로 만들

표2. 우유의 생산과 소비 현황

구 분	'80(A)	'85	'90	'94(B)	B/A(%)
원 유 생 산 량	452천톤	1,006	1,752	1,917	424
소 비 량	412천톤	991	1,879	2,078	504
1 인 당 소 비량	11kg	24	43	47	427
시 유 소비비율	73.5%	76.1	71.3	70.8	△3.7
자 급 율	100.0%	100.0	93.2	92.3	
1 인 당 GNP	1,592\$	2,194	5,569	8,483	533

주: '80, '85년은 원유 잉여  
자료: 낙농편람('95 농림수산부)

표3. 제품별 소비 현황

구 분	'80(A)	'85	'90	'94(B)	B/A(%)
전 지 분 유	6,532천톤	11,030	15,177	3,544	△45.7
탈 지 분 유	3,018톤	6,046	18,302	19,433	644
연 유	1,183톤	2,438	3,448	3,295	278
치즈	123톤	478	3,714	13,182	10,017
버터	740톤	5,094	7,254	3,034	410
발효유	98,084톤	146,869	352,896	524,608	535
			(35,048)	(91,923)	

주: ( )안은 호상요구르트 소비량임  
자료: 낙농편람('95 농림수산부)

### 3. 유제품 수입개방의 영향

UR타결 이후 정부, 학계 및 매스컴에서는 앞다투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요점은 한결같이 생산비절감·생산성향상·품질의 향상·유통구조의 개선등이다.

그러나 주체인 낙농가들의 반응도 미약하거나 관련업체도 후속

어 주었다.

그러나 '95년 10월에 일어난 유질논쟁은 재고량이 누중되어 전년 대비 3배에 달하였고, 1~2월의 비수기를 감안할 때 '96년 원유수급은 불안한 조짐을 안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호주산 수입평균유의 시판과 수입치즈를 이용한 국

표4. 유제품 수입 현황

(단위:톤/천\$)

구분	1990		1991		1992(A)		1993		1994		1995(B)		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지분유	84	156	4,157	5,967	880	1,492	2,183	3,261	1,327	2,244	366	778	435.7	498.7
탈지분유	594	1,075	12,945	17,452	7,950	13,255	12,660	22,016	10,254	15,482	6,513	13,650	1,094.6	1,269.8
버터	110	314	2,508	4,266	369	790	514	1,050	515	1,079	424	967	385.5	308.0
치즈	123	780	121	706	200	956	265	1,279	3,120	8,560	9,155	27,660	7,443.1	3,538.5
유장분말	14,076	12,090	17,291	14,180	17,606	15,982	18,648	16,242	20,018	15,098	32,052	43,350	227.7	358.6
유당	6,217	4,408	8,467	5,735	8,967	9,432	9,979	9,560	11,424	7,977	8,669	6,052	139.4	137.3
카제인	5,760	28,903	4,051	15,390	6,933	32,735	6,284	32,769	5,945	28,064	4,614	25,382	△19.9	△12.2

① 자료: 무역통계월보

② ( )내는 사료용 유장분말 추진실적임

내 유업체의 우리 입맛에 맞는 치열한 개발경쟁, 모조분유의 무차별 수입은 원유의 과잉을 우려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90년 이후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치즈의 경우, '90년 대비 '95년 수입이 24배가 증가하여 국내 치즈소비량의 50% 이상 점유하고 있고, 몇년후면 치즈제조도 거의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상당량의 자연치즈가 수입되고 있고 앞으로 자연치즈와 가공치즈의 수요는 즉시 치즈수입으로 될 것이며 점차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벌써부터 유가공업체는 자연치즈 설비 유휴화에 따른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인력 감소 및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

#### 4. 향후의 낙농방향

'95년말에 밀어닥친 우유위생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낙농사에 커다란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낙농에 중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위생적인 원유의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소중한 자산을 배운 것이다.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표현이 요즘은 변화되어 소비자는 신(神)으로 격상되었으므로 낙농가들은 내적으로 고귀한 소비자를 지키기 위해 선진낙농국의 낙농가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것이다.

#### 가. 낙농가들의 프로(PRO) 의식과 조직의 활성화

우유는 젖소에서 짜는 것이지만 오히려 낙농가들의 능력대로 생산한다는 뜻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경쟁이 치열할 수록 낙농가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흔히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당산유량 증가 및 규모의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사육규모는 23두에 머물러 있지만,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35두 이상 확보되어도 이는 외형적인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닌 내실을 기하는 낙농가의 의지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지금까지 우리의 낙농은 수입개방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보호아래 성장하였다. 특히 앞으로의 원유가격은 시장기능에 의해 좌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낙농에 대한 목표설정이 중요한 것은 농가의 연령과 후계자 그리고 주변여건을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젖소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대출한도와 여건이 좋다고 하여 무리한 투자와 기계를 도입하였다가 폐업이 되었을 경우 개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가적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낙농환경의 취약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대체계획을 세워야 한다.

선진낙농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토지, 자본 및 사양기술등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속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낙농은 사양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식의 체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기술의 선진화는 우선 젖소 두당산유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권장

표5. 선진낙농국과 한국의 젖소능력검사업 현황

국가명	경산우 두 수	검정우 두 수	검정우 비율(%)	검정성적			검정소요비용	
				유량 (kg)	유지율 (%)	유단백율 (%)	연간경비/두 원유환산/kg	농가부담율 (%)
호주	1,653,000	883,422	53.4	4,887	4.23	3.32	87.0	20.0
캐나다	1,267,000	711,074	56.1	7,988	3.74	3.37	-	65.0
덴마크	698,000	578,984	83.0	6,891	4.45	3.42	52.0	90.0
영국	2,173,000	1,184,968	54.5	6,151	4.08	3.27	43.0	71.9
불란서	4,644,500	2,531,345	54.5	6,509	4.06	3.29	140.0	80.0
독일	5,301,000	3,720,669	70.2	5,982	4.28	3.41	81.5	33-77
일본	1,247,000	549,546	44.1	8,130	3.81	3.15	66.1	52.1
화란	1,746,733	1,336,861	76.5	7,220	4.46	3.49	52.0	100
미국	9,708,000	4,789,292	49.3	8,382	3.70	3.22	-	-
이스라엘	104,000	91,520	88.0	10,136	3.09	2.99	35.0	100
한국	316,404	25,667	6.1	6,763	3.58	3.35	-	-

\* 자료 : ICAR(1993), 한국(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보고서; 1994)

\* 검정소요비용은 유량으로 환산한 수치임, 검정방식이 30일 간격인 국가만 해당

할 만한 것은 기르고 있는 젖소의 성적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현재까지 가장 이상적인 것이 젖소능력 검정을 실시하여 개량과 도태를 시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유량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젖소등록사업이나 일본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낙농기술은 종합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조직과 기술자이다. 낙농경영에 있어서 조직을 통한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 3년후 반드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에서는 낙농전문가의 양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조직을 소중히 여기며, 기술자를 우대하는데 무척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야 말로 취약한 우리 낙농인들이 힘을 합치고 대항해야 우리의 몫을 채길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목장을 운영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경영의 원칙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우리가 그것을 계수화시키고 분석하지 않았기에 비합리적이었던 것이다.

앞으로의 낙농은 목표를 확실히 세워 실천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낙농조직은 낙농가 개인이 할 수 없는 제도개선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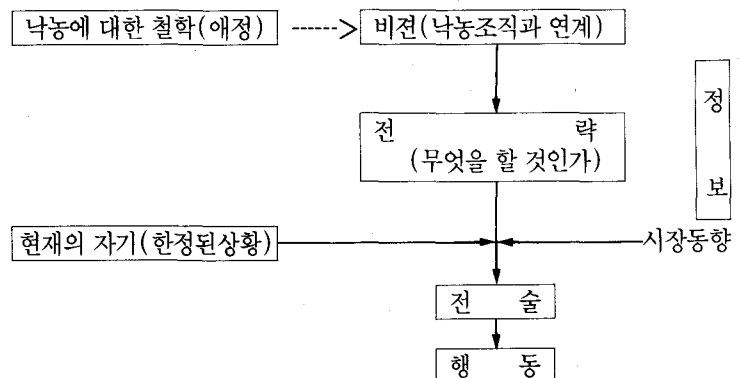
다.

특히 농가들의 자기혁명이란 프로다운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여야 하고, 그 목표에 대하여 가족과 구성원이 모두 공감하여야 한다.

#### 나. 생산비절감

UR 협상이후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생산비 절감이다. 완전개방시장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림1. 낙농가의 경영목표 단계



제품가격인 점을 감안할 때 가격이 외국산보다 높을 경우 그 만큼 시장을 잠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낙농가는 생산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세워야 하고 업체는 생산원가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장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부는 낙농가와 업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목장의 비용절감은 앞서 서술했듯이 목표를 설정하여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낙농가들은 기업에서나 하는 경영계획·분석·진단등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과 별개의 문제로 치부하였으나 이제 상황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목장경영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면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생산비 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생산비의 목표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젖소능력 향상,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을 극대화시켜 3가지 요인이 자신이 세운 목표와 모두 일치되어야 한다.

젖소 두당산유량은 낙농가 자신의 고도의 사양기술이 필수적이며 여기에 정확한 산유량 기록 및 경제성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젖소의 유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선진낙농국의 경우 젖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그 결과 두당 평균산유량이 7,500kg이상 되고 있으며, 검정사업 참여율도 50%

이상 되고 있다. 두당 산유량이 10,000kg만 향상시켜도 10% 정도 원유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인 도태와 우량 육성우 확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사료급여와 연중 사일리지 체제이다.**

젖소의 능력이 좋을수록 그에 걸맞은 사료급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TMR의 경우는 편리성만 강조되고, 능력에 따른 군(郡) 분리가 따르지 못한다면 이것은 과비와 번식장애등의 반작용을 유도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곡물가격이 계속 상승되는 정세를 감안하여 인력난과 농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한 연중 사일리지 체제가 더욱 중요시된다 하겠다.

**셋째, 시설개선의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목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목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채 시설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경영의 악순환만 되풀이되므로, 투자할 부분과 시기등을 고려하여 중, 장기시

설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기계의 공동이용 및 기계, 설비등의 세심한 관리를 통해 내용연수를 연장함으로써 그만큼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 다. 위생적인 원유생산

우리나라는 소비패턴이 시유중심이기 때문에 원유의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켜야만 국제시장에서 살 수 있다라고 수년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 첫단계로 '93년 세균수에 의한 원유위생등급제만 먼저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는 1등급(세균수 10만 미만)의 비율은 1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현재는 70%수준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원유위생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다만 원유위생수준의 다른 척도인 체세포수는 농가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차후에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최근의 우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체세포수 등급가격제도 실시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우유의 효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안전

표6. 세균수 및 체세포수 현황

구 분		'96. 6(A)	'94	'95.상반기(B)
세균수	1 등 급	23.0%	59.2%	66.3%
	2 등 급	18.5	19.2	16.2
	3 등 급	17.2	10.4	7.9
	4 등 급	18.7	7.1	5.6
	등 외	22.6	4.3	4.0
체세포수	1 등 급	-	29.0	29.0
	2 등 급	-	30.3	31.7
	3 등 급	-	20.6	20.6
	등 외	-	20.1	18.7

자료: 낙농편람('95 농림수산부)

한 우유에 대한 선호도가 무척 높고 무조건 최상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스크의 위력은 너무나도 막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농가들의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해졌다. 어찌면 이런점이 수입밀균유의 소비를 제어하는 기능이 되고 있다.

이제는 낙농가들도 우유의 홍보와 소비에 나서야 한다. 만일 유업체의 원유가 체화된다면 그 여파는 곧 낙농업계에 미칠 것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목장의 경영모습은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사양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세균수는 최소한 1등급 A(세균수 3만 미만)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고, 체세포수는 시간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만성 유방염 젖소는 반드시 도태하여 국제수준인 40만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건유시 사용하는 약제의 투약 및 휴약기간을 지켜 항생, 항균물질의 검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우리의 소비자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라. 유통구조의 혁신**

수입개방이 가시화 되면서 낙농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제품의 판매단계를 최소화해 수입유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유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우유 및 유제품 소비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시유의 경우 유통경로는 공장→보급소(대리점)→판매원→가정 또는 대형유통점·슈퍼체인·편의점등

다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유통비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시유 판매 경로는 약 70%이상이 판매원을 통해 가정 또는 일반 매장에 공급되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가격면에 있어서 판매원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으로 보급소는 판매원 확보를 위해 고임금을 지불해야 함에 따른 소비자가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우유 200ml 1개의 유통비용은 '91년도에 39.5%였으나 현재는 46.6%나 되고 있다. 또 시유의 공급체계가 일정지역의 원유생산으로 처리된 시유가 전국으로 수송되어 경쟁판매됨으로서 막대한 물류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특히 각 유업체간 시장확보를 위한 홍보전략이 공동홍보 체제로 진일보된다면 유질논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낙농생산구조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나라든 법적인 제도가 장치된 것이다. 원유가격의 불안정은 유업체들이 파행적인 유가공경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고, 원유검사제도의 허점들은 유질개선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제품의 선진화가 불가능해지며, 수급의 불안정은 유업체의 경영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95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낙농진흥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이법의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 낙농가, 유업체 모두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배합사료가격 영세율 전면 적용은 낙농뿐만 아니라 축산업계 모두가 염원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옥수수 등 사료 원곡의 주 생산지인 미국, 중국등의 국가는 2년여에 걸친 이상기후 등으로 수확량이

표7.. 시유 200ml당 단계별 가격구성 현황

년월일	원유대		제조경비		유통비용		소비자가격	
	원상율	인상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인상율
'91. 7. 1	383원	5.2%	133원	60.5%	87원	39.5%	220원	22.2%
'93. 5. 1	394	2.9	160	53.4	140	46.6	300	20.0
'95.10.16	414	5.1	160	53.4	140	46.6	300	

자료 : 낙농편람('95 농림수산부)

**마. 불합리한 제도개선**

어느나라든 낙농이 존재한다면 원유의 거래와 가격제도, 공정한 검사제도, 정부지원하의 원유수급안정제도, 국내 낙농산업의 보호안정장치등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장치가 없다.

감소한 반면 세계 각국은 사료원곡의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1년 사이에 사료가격이 두번 인상되었고 '95년 7월에 옥수수가격이 톤당 150\$ 정도 하던 것이 최근에는 180\$ 정도에 육박함에 따라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은 경영비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가 인상됨에 따라 낙농가의 소득감소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각종제도가 선진낙농국과 비슷해도 우리의 천혜적 여건이 불리한 입장인데, 제약받는 조건하에서 가격의 경쟁력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제도의 국제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췌트 35두(성우기준) 이하에만 적용되는 영세율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결 론

UR 타결 이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농업에 대해 취하고 있는 보호정책을 2000년도까지 점차 감소해야만 한다. 미국은 오랫동안 국내자급형 낙농에서 수출형 낙농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으나 낙농이란 특이한 성격상 일조일석에 효과를 얻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낙농선진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권을 상대로 자기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보조금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이들 국가도 보조금없이 우리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약점도 갖고 있다. 이 기간동안 우리 낙농가들은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유통구조혁신을 통해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이익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공동된 위기의식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낙농가들이 단일한 방법에서 탈피하여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면서 우리의 시장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 초지대리이용관리자 모집공고 (제2차)

고양시 공고 제527호

초지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7, 규정에 의거 초지대리이용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대상초지내역

초 지 소 재 지	조 성 내 역		소 유 자	
	년 도	면적(ha)	주 소	성 명
고양시 원흥동 528-62	69	6.32	고양시 원당동 산 38-23	한양관광(주) 우 윤 근

2. 대리이용관리자 모집사유 : 초지부실관리로 인한 전면 갱신 및 가축임식

3. 공고기간 : 1995. 12. 6-'95. 12. 13 (7일간)

4. 신청기간 : 1995. 12. 6-'96. 1. 6 (30일간)

### 5. 신청자격

- 대상초지를 성실히 관리하고 초지법에 의한 기준두수 이상의 가축을 임식하여 축산업을 경영할 능력과 의욕이 있으며
- 초지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사료용 및 시설물 사용료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자

### 6. 신청서류

- 초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산업과 축정계((0344) 965-13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5. 12. 6.

# 고 양 시 장